

-(으)ㄴ 즉

~하니까; ~해 보니

두 가지 역할을 하는 예스러운 연결 어미입니다.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, 드러난 사실을 전하기도 합니다. 옛글과 속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ㄴ 즉	그러하다 → 그러한즉
받침 있음	-은즉	깊다 → 깊은즉
ㄹ 받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든즉
동사, 발견	-(으)ㄴ 즉 / -는즉	열어 본즉
강조형	-은즉슨	깊은즉슨
현대의 대응 표현	-(으)므로, -아/어 보니	그러므로, 열어 보니

■ 언제 쓰나요

받침 없는 어간은 -ㄴ 즉, 받침 있는 어간은 -은즉을 쓰고, ㄹ 받침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든즉. 동사는 -는즉을 쓰기도 합니다. 붙여 쓰며, 은즉슨은 강조형입니다.

이유의 용법에서는 ‘그러하므로’라는 뜻입니다: 사정이 그러한즉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발견의 용법에서는 무언가를 해 보니 알게 된 것을 전합니다: 문을 열어 본즉 아무도 없었다. 이때는 다음의 옛 형태처럼 씁니다: -았/었더니.

문체는 매우 예스러워서 경전, 고전 산문, 공식 포고문 등에 씁니다. 현대의 글에서는 대신 므로나 보니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사정이 그러한즉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 문을 열어 본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.
- 3 뜻이 깊은즉 함부로 논할 일이 아니다.
- 4 까닭을 물은즉 대답이 없었다.
- 5 손수 만든즉 값을 매기기 어렵다.
- 6 근본이 바른즉 흔들릴 까닭이 없다.

■ 비교

-(으)므로

이유 용법의 현대 대응 표현입니다. 므로는 표준 격식체이고, 은즉은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

그러므로 이해해 주십시오. (격식체) / 그러한즉 이해하시라. (예스러운)

-았/었더니

발견 용법에는 더니가 현대 형태입니다. 둘 다 무언가를 해 보고 알게 된 것을 전합니다.

열어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. (현대) / 열어 본즉 아무도 없었다. (예스러운)

-(으)ㄴ/는 고로

둘 다 이유를 나타내는 예스러운 연결 어미입니다. 고로는 더 순수하게 인과를 나타내고, 은즉은 ‘사정이 이러하니’에 무게를 둡니다.

사정이 그러한 고로 / 사정이 그러한즉

■ 주의

✗ 손수 만들은즉 값을 매기기 어렵다.

○ 손수 만든즉 값을 매기기 어렵다.

ㄹ 받침 어간은 만든 음식, 아는 사람처럼 -(으)ㄴ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사정이 그러한 즉 이해해 주십시오.

○ 사정이 그러한즉 이해해 주십시오.

-(으)ㄴ 즉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씁니다.

✗ 야, 배고픈즉 밥 먹자.

○ 야, 배고프니까 밥 먹자.

-(으)ㄴ 즉은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옛글을 낭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